취사·흡연·고성방가…무등산이 아프다

음주·쓰레기 무단투기
비등산로 출입도 다반사
매년 불·탈법 200여건 적발
성숙한 등산문화 아쉬워

지난 16일 무등산국립공원내 '새인봉갈림길' 벤치에서 등산객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 다이어트를 위해 봄부터 매주 무등산에 오르고 있다는 회사원 김기영(33)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자주 다니는 등산 코스를 바꾸든지 아니면 등산을 무등산이 아닌 다른 지역 산으로 다닐까 생각중이다.

지난 16일 점심께 무등산 '새인봉 갈림길' 벤치에서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조용히 쉬어가는 구간인데, 술판 탓에 기분이 상해 급히 산을 올랐다고 한다.

#.지난 15일 오전 무등산에 오른 박한웅(3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도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한 휴일을 망친 기분이었다고 한다. 앞서 가는 등산객이 일명 '효도 라디오MP3'라 부르는 기기로 노래를 크게 트는 바람에 1시간 가까이 소음에 시달렸다고 한다. 중봉이나 정상에서는 등산 민폐 행위로 여겨져 이미 십 수년 전에 사라진 '야호~!'를 외치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었고, 심지어 쉬어가는 구간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어 애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무등산이 탐방객들의 음주가무,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힐링과 건강을 생각해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면서 '꼴불견 등산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던 2014년께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무등산을 명산으로 보존하자는 의식이 강해 등산 문화 수준이 높았으나 최근 2~3년 새 급격히 등산 에티켓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서석대·새인봉·용추계곡(벌집바위) 일대 등 고지대(3곳)에서만 음주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고지대를 제외한 무등산 어느 곳에서나 술을 먹을 수 있는 탓에 음주로 인한 추락이나 낙상 등 사고 위험은 물론 건전한 등산문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나 지도장이 발급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는 금지구간에서의 음주행위·비등산로출입·흡연행위·인화물질반입·취사행위·잡상행위·오물투기·무단주차·동물입장행위·야간등반·불법시설물설치·형질변경·식물채취·동물포획·동물입장행위·야간등반 등이다.

20일 무등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무질서 행위로 과태료나 지도장이 발급된 현황은 2016년 202건, 2017년 270건, 지난해 218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다. 적발 건수가 200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산 속 벌어지는 불·탈법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해 적발된 218건 중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는 비등산로 출입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얌체 주차가 51건, 흡연 행위가 47건으로 뒤를 잇는다. 식물 채취 25건과 고기를 굽거나 밥을 짓는 불법취사 23건도 단속됐다.

금지구간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된 현황은 7건이며,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오물을 투기해서 적발된 경우도 각각 4건이다. 잡상행위는 물론, 심지어 동물을 데리고 산행을 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산악단체 회원 일각에서는 "산에서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게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본부장은 "매달 1회 이상 증심사 생태탐방원 앞에서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등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꼴불견 산행이 적지 않다"며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조성될 때 국립공원이 보다 더 잘 유지되고 보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함평 1인 시위자 폭행사건' 소극 대응 경찰 징계 착수

전남경찰, 조폭 이권 개입 가능성 수사 확대

함평군청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광주일보 2019년 6월17일자 6면〉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된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낮 12시50분께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중이던 A(37)씨는 5분간 모 건설사 직원 B(40)씨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차량으로 해당 현장을 찾은 사복 경찰관이 그냥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비판을 받았다.

함평경찰은 지난 14일 B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가 광주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관심 대상' 조폭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폭이 건설업체에 취직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을 잘하려다가 실수한 경찰관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경우는 냉정하게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홍률 전 목포시장 "손혜원에 준 자료, 보안문건 아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보안자료'를 건네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손 의원에게 건넨 자료는 시민공청회시 공개됐던 문서의 요약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장으로서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미 시민들께 공개됐던 내용을 발췌 편집해 지역 현안 자료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목포 최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개항역사의거리 조성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혜원 의원과의 만남도 오로지 목포 발전과 불 꺼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장으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였다"면서 "목포시가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현안 등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술 안판다" 행패 동네주폭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인을 때리거나 술집 주인이나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이모(55·무직)씨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에 오후 7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값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려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에 앞서 16일 오후 4시 45분께에도 우산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며,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깨 주인 양모(61)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불구속기소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윤장현 시장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고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서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받은 조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찜질방 돌며 휴대전화 1500만원 상당 절도 2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0일 찜질방만을 돌아다니며 새벽시간에 휴대폰을 훔쳐온 강모(23)씨에 대해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찜질방에서 김모(21)씨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심야시간 찜질방에서 휴대폰 23대(15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5범인 강씨는 무직으로 광주, 창원, 서울, 울산, 수원, 천안 등 전국을 떠돌면서 찜질방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훔친 휴대폰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대 당 20~3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스트롯' 송가인 차량 반파 교통사고…다행히 부상 경미

쌍나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인 가수 송가인(32·본명 조은심)이 광주에서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다 차량이 반파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경미한 부상만을 입고 병원 치료중.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금산사 나들목 인근에서 송씨가 탄 카니발 차량의 측면을 화물트럭이 들이받아 송씨와 동승자 김모(21)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

○…탑승자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씨의 소속사는 "송가인은 김제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현재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향후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연합뉴스